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소식지

vol. **03**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독서교육전공

독서교육 전공, 2026 여름세미나 개최

읽기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배우고,
연구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 전공에서는 2026년 여름,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여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독서교육 분야의 최신 연구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공 구성원들이 서로의 연구와 경험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의 첫 순서로는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님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병영 교수님께서 「사고 구술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읽기의 과정」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읽기를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사고 구술을 활용하여 독자의 읽기 과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실제 읽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독서교육 전문가 이제는 선생님의 선배 초청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AI 활용 문해력 수업 설계」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문해력의 의미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AI를 문해력 교육에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아이디어를 함



께 나누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독서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논문 발표 및 연구 성과 공유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42기 오미아, 차지현 원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의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고, 전공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 주제와 방법을 접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독서교육 전공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술적 교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전공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나만의 대학원 생존법」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학업과 연구, 시간 관리,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그룹별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선배들의 실제 대학원 생활 경험과 후배들의 고민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혼자 고민하기 쉬운 대학원 생활의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에는 졸업을 앞둔 원우들을 소개하고 졸업 선물 증정 및 소감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독서교육 전공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 오신 졸업생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원우들의 소감을 함께 들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여름 세미나는 독서교육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는 전문가 특강부터 AI 시대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고민, 연구 성과 공유, 선후배 간 경험 나눔과 졸업 축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서교육 전공 구성원들은 서로의 연구와 경험을 나누며 배움의 폭을 넓히고, 독서교육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 전공에서는 읽기와 문해력 교육의 변화에 주목하고, 연구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며,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 및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평생교육전공

1. 재학생 수기

평생교육전공 4학차 조해니

처음 입학했을 때는 평생교육을 전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학기째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제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누구의 지나온 시간도 쓸모없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일만 평생 해오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슨 배움이야”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몸으로 익힌 요령과 연륜이 쌓여 있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배움의 재료입니다.

그 경험이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나만의 콘텐츠가 되고, 그걸 다듬으면 나만의 수업이 됩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만 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평생교육에서 말하는 전환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모든 시간이 이미 배움의 재료입니다. 과제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일해 온 곳, 내가 겪어 온 일과 연결해 보세요. 어느새 여러분만의 수업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도 남은 시간도 잘 채우며 배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새로 오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교육전공 3학차 정다은

이번 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수업에서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을 설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이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미래의 평생교육 실천가로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교육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새삼 무겁게 느꼈습니다.

아직 평생교육을 배워 가는 학생이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가르칠까?’만큼이나 ‘이 배움이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싶습니다. 배움이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공부해 나가고 싶습니다.

» 상담교육전공

1. 심리검사 전문가 특강

2026년 6월 18일

주제 심리검사특강
(MMPI-2, TCI 중심)

심리검사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다만 결과를 어떻게 읽고 상담 안에 녹여내느냐에 따라 그 쓰임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상담교육전공에서는 조한로 선생님(온마음상담원)을 모시고, 상담 장면에서 자주 활용되는 MMPI-2와 TCI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두 검사의 주요 특성과 해석 방법을 배우고, 검사 결과를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 과정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나타난 숫자와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검사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이해하려는 상담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점수라도 내담자가 살아온 삶과 지금의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론으로만 접했던 심리검사를 실제 상담 장면과 연결해 생각해 보며, 상담자로서 심리검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 공개사례발표

2026년 5월 28일 / 2026년 6월 4일

상담교육전공에서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을 위한 공개사례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공개사례발표는 상담자가 자신이 진행한 사례를 수퍼바이저와 동료들 앞에 내어놓고 함께 검토받는 자리로, 상담심리사 수련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전문 수퍼바이저를 모시고, 상담교육전공 학생의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 과정과 개입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발표자 혼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와 동기들도 각자의 생각과 질문을 나누며 하나의 사례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상담 사례를 함께 공부하는 일은 곧 각자의 상담과 공부를 깊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수련상담실 운영

신청 문의: couneducuk@gmail.com

교육대학원 수련상담실에서는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수련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이 맡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실제 내담자를 만나 상담과 심리검사를 직접 진행하며, 상담자 윤리를 지키는 가운데 현장의 실무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련상담실은 상담자로 성장해 가는 재학생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이나 심리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위의 메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공 간담회

2026년 6월 18일

다음 학기를 앞두고 상담교육전공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수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가 둘러앉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근황과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음 학기 운영 방향과 방학 동안 전공에서 진행될 일 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수업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서로를 한층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의 곁에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며, 다가올 학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자리였습니다.



» 한국어교육전공

1. 현재 하고 있는 일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졸업한 이광훈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자에게 한국어교육 이론 과목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습자들의 성장과 언어적 성취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2. 대학원 진학 동기 부여

학부 전공은 역사문화학이었지만 전문성 확장, 언어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교육 분야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만의 뚜렷한 교육철학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는 데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까지 경험할 수 있게 잘 구성된 교육 과정 역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 졸업 후 전공과의 연계 및 성과/근황 소개

석사 과정 이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전공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전공과목 및 한국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며 얻은 경험들로 최근에는 구민지 교수님과 논문을 게재해 연구 성과도 내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에도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통해 졸업 이후에도 전공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길을 걷고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과 연구, 그리고 사회적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4. 한마디 메시지

교육대학원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태도와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꾸준히 탐색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결도 중요하니, 동기들과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5.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교수님 소개

한국어 실습 과목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융합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수업이었고, 교수님의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피드백은 지금까지도 제 교육철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배주채 교수님, 구민지 교수님, 박소연 교수님의 조언과 지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6.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의심을 품을 시간에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두려움은 자신을 작게 만들 뿐입니다.



행복의 지름길

» 유아교육전공

2026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총동문회

2026년 9월 11일, 유아교육전공 20주년을 맞아 선후배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은 유아교육 현장과 학문을 잇는 배움의 장이자,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는 교육전문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든든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총동문회에서도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전공에서 공부한 선후배들이 만나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유아교육전공이라는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원에서의 배움은 졸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후배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현장과 연구를 연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20년의 배움을 이어, 앞으로의 유아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만남도 기다립니다.





» 직업특수교육전공

재학생 인터뷰

* 현재 하고 있는 일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1일부로 국립한국경진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이승우라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 체육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 중등교육과정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대학원 진학 동기 부여

: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학생들의 취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그 기관의 인재상과 추구하는 방향 등을 알아보고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지시 따르기, 차례 지키기 등 기초적인 능력이 요구되는데, 기관이 요구하는 만큼 갖추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부 시절 직업특수교육을 공부했는데, 교사의 입장에서 같은 내용을(혹은 더 깊게 심화하여) 다시 공부하면 다르게 와닿을 것 같다는 마음도 진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교수님 소개

: 저는 이현주 교수님의 전환교육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부생 때는 개별화전환교육 계획(ITP) 작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ITP를 작성하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의 진로를 준비하다 보니 그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졸업 직전에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자료를 모아 충분히 활용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미국에서는 만 16세부터 전환 계획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 한마디 메시지

: 특수교육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다들 저마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점수에 맞춰 온 후배님도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후배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학과에서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학우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학부생이었지만, 직장에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요청할 줄 알아야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과 조화롭게 지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학부생분들 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교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학교생활 보내세요~!